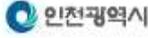


| | | | |
|---|--|--|--|
| 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|
| | 배포일자 | 2021년 3월 29일(월) 총 4매 | |
| 담당 부서 인천대공원사업소 | 담당자 | • 대공원팀장 홍 은 영 ☎440-5831 • 담당자 배 주 환 ☎440-5834 | |
| 사진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
| 보 도 시 점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인천대공원, 악취·적조 없는 친환경 호수로 더 깨끗해져
- 4년간 퇴적물 방류, 준설작업 등 수질개선사업 완료 -
- 필터교체비 4억, 수처리 용역비·유지관리비(연간 5천만 원) 절감 -

- 인천의 대표공원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인천대공원이 악취·적조 없는 친환경 호수로 더 깨끗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됐다.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인천대공원 호수에 대해 추진한 4개년(2018~2021년) 수질개선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.
- 1995년 조성된 인천대공원의 중심부에 위치한 호수는 44,370㎡의 면적에 약 5만 톤의 담수용량을 갖고 있다. 하지만, 상류인 만의골 지류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그동안 다량의 부유물과 퇴적토가 계속 쌓이면서 여름철에는 조류 증식이 활발해 수질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.

- 이에 따라 인천대공원은 2018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차별 수질개선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, 4년간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.
- 2018년(1차) 침전 유입물 개선을 위한 수질개선장비(5대)를 설치한데 이어, 2019년(2차)에는 바닥 퇴적물을 하류로 배출하기 위해 기존 고무가동보 방식을 전동식 수문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다. 2020년(3차)에는 수위 및 밸브 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, 올해 3월 마지막(4차)으로 만의골 지류 유입부에 대한 준설공사를 모두 마쳤다.
- 4년간의 수질개선사업과 수질검사,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인천대공원 호수는 악취와 적조가 없는 친환경 호수로 재정비됐으며, 공원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89%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특히, 소모성 예산인 필터교체비 4억 원과 매년 소요되던 수처리 용역비 4천만 원, 유지관리비 약 1천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.
- 또한, 인천대공원 호수의 수질개선장비는 산불진화헬기 담수용 저수조 설치에도 활용돼 전국 최초로 동절기에도 결빙 없이 산불진화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질개선과 산불대응의 두 가지 효과를 거두게 됐다.
- 한편, 남동구 장수동에 위치한 인천대공원은 2,665천㎡의 면적에 수목원, 습지원, 동물원, 목재문화체험장, 환경미래관 등의 시설을

갓춘 도심 속 휴식공간이자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휴양공원이다.
연중 휴무일 없이 운영되며,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05:00~23:00,
동절기에는 05:00~22:00까지다.

- 서치선 인천대공원사업소장은 “호수 수질개선사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기존보다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” 고 말했다.

< 참고 > 인천대공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사진

인천대공원 수질개선사업 관련 사진



2017년 호수 상태



2018년(1차) 수질개선장비 설치



2019년(2차) 수문 전동화 공사



2020년(3차) 원격감시제어 구축



2021년(4차) 호수 준설공사



현재 인천대공원 호수 모습